



Market Index / 17일

코스피지수 ▲ 2494.66 +14.42	코스닥지수 ▲ 834.19 +17.44	유가(WTI, 달러) ▼ 70.86 -0.25	환율(원)	1USD 1360.90 100¥ 994.34	살때 1314.10 팔때 960.14	1EUR 1481.43 1CNY 200.40	살때 1423.63 팔때 181.32
---------------------------	--------------------------	------------------------------	-------	-----------------------------	-------------------------	-----------------------------	-------------------------

제주 취업난 속 '빈 일자리' 만 3200여개

숙박·음식점업이 1409명으로 전체의 43% 차지 전체 산업 중 소득 가장 낮아 구직자 기피 영향

제주지역 취업난의 한편에선 사람을 못구해 비어있는 일자리가 30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는 일자리를 원하고 기업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불일치)로 빈일자리가 발생하는데, 업종별로는 상대적으로 임금과 낮고 근무조건이 열악한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빈일자리가 전체의 40%가 넘었다. 빈일자리는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해 구인난으로 해석될 수 있다.

17일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3월 기준 제주지역 빈일자리(상용+임

시일용)은 3249개다. 3월 도내 실업자가 1만1000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비어있는 일자리를 채우면 실업자가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빈일자리가 1409개로 전체의 43.4%를 차지했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232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5%(212개)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서비스업은 빈일자리가 없었다.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4개, 금융 및 보험업 7개,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제

성업은 7개로 상대적으로 빈일자리가 적었다.

특히 빈일자리가 가장 많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3월(376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0년 3월 204명에서 2021년 3월 705명, 2022년 3월 1880명으로 증가했다가 올해는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빈일자리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꼽힌다.

제주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일할 사람을 구하고 싶지만 임금을 많이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되다 보니 구직자와 조건이 안맞아 가족 노동력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며 "일하겠다고 했던 이들도 며칠 하고는 그만두는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04만원으로, 전체사업 평균임금(390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가장 적다.

또 통계청의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를 보면 2021년 12월 기준 전국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162만원으로 전체 산업별 평균소득(333만원)을 크게 밑돌며 유일하게 200만원에 못미쳤다.

반면 빈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663만원으로 높았다. 또 금융 및 보험업(726만원)과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357만원) 근로자 평균소득도 높게 나타났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 출신 상공인들 교류의 장 열린다 18~19일 글로벌 제주상공인 포럼... 3000여명 참가

제주와 국내의 상공인들의 교류를 통해 제주 출신 상공인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제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재외제주경제인총연합회, 제주매체나협회와 공동으로 '2023년 글로벌 제주상공인 포럼'을 18~19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2층 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추한 대전환의 시대, 제주경제 기회·도전'을 주제로 열리는 상공인 포럼에는 도내 상공인과 국내외 상공인 50여명 등 300여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첫 날인 18일 오후 개회식에 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기조강연

'빛나는 제주를 위한 새로운 기회와 도약'이 진행됐다. 19일 오전에는 제주상공인 포럼이 열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기업의 역할' 주제발표에 이어 오영훈 제주미래 가치포럼 의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오후에는 초청강연으로 고경찬 벤텍스(주) 대표이사의 '코로나처럼 경영하라', 최종원 배우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이어지는 청년상공인포럼에선 황재선 SK디스커버리 부사장의 '챗GPT시대, 제주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다' 주제발표에 이어 송상섭(주)한림공원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벌인다. 문미숙기자

도내 수출 초보 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도경제통상진흥원 참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올해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수출 초보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수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수출 통관컨설팅, 홍보물 제작, 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및 홈페이지 리뉴얼,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SNS 마케팅, 해외규격인증 획득 분야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jba.or.kr) 또는 제주전자무역시스템(www.jejutrade.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소정기자

ICC JEJU, 제주포럼 성공 개최 결의대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 JEJU)는 16일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제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ICC JEJU는 지난 5월 3일 제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5개 분야(안내, 행사기획, 식음, 안전, 행사지원)로 구성된 제주포럼 준비위원회를 조직, 주 2회 자체 회의를 진행하며,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결의대회에서는

각 분야 과제 발표를 통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제주포럼 전반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했으며, 특히 이슬람 문화권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할랄문화와 음식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열리는 제주포럼은 오는 5월 31일(수) 개막해 다음 달 2일까지 사흘 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관에서 진행된다. 고대기자



물질 나가는 해녀들 17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해안가에서 해녀들이 우뚝가사리 채취작업을 위해 바다로 향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농약 안 쓰는 친환경 골프장 확대 지하수 보존"

오영훈 지사, '농약 미사용' 에코랜드GC 방문 간담 "운영사례 면밀 분석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마련"

오영훈 지사가 "친환경골프장 확대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며 "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골프장의 사례를 분석해 다른 골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지난 16일 환경부의 친환경골프장으로 선정된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소재 에코랜드GC를 방문 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에코랜드 GC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도내 골프장을 친환경골프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에코랜드 GC는 화학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제제를 활용하는 골프장으로, 지난 4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전국 농약 미사용 골프장 3개소 중 한 곳으로 선

정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에코랜드 관계자는 "미생물제제 사용은 장마기간에는 일반 농약보다 효율이 떨어지고 비용도 관행보다 2~10배 이상 더 들어 경영에 어려운 점도 있다"며 "친환경골프장 확대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지원도 필요하다"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에코랜드 GC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다른 골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친환경골프장 확대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제주도는 최근 '지속가능한 친환경골프장 조성 전담조직(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제주도-골프장 간 수질관리, 경관, 청정이미지 등을 위한 공동 노력 ▷골프장 운영주체 참여 및 관리자 네트워크 구성 ▷해외사례 검토 ▷골프장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친환경골프장 조성에 따른 정책·기술적 지원방안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대기자 dhkang@ihalla.com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 ONE-STOP SYSTEM
-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요목

유라조생	2~3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탈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평	3년생
진지향	3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리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마나스, 레몬, 탱자(1년생 300원, 2년생 400원)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히라배니(궁천변이)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본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010-2691-1883
(관리자: 010-9480-1564)